해외 대신 국내 연수…광주 서구 '배움탐' 눈에 띄네

외유성·부실 비판 탈피…마을자치·골목 경제 등 정책연수 '호평'
공무직까지 직원 200여명 자율 참여 가능…1인당 50만원 지원

광주시 서구청이 예산 1억원을 들여 직원 200여명에게 자율적으로 국내연수를 보내주는 '테마기행 배움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구청이 국내연수 사업에 1억원에 달하는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외유성 논란에 부실연수 비판을 받기 일쑤인 해외연수를 보내는 대신 국내연수를 집중 지원하는 점, 보상 목적이 강했던 연수 사업을 본격적인 정책 발굴 및 직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점 등에서 눈길을 끈다.

서구청은 다음 달 5일까지 배움탐 프로젝트에 참가할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가 직원들은 오는 7~11월 중 국내 어느 곳이든 연수를 갈 수 있는데, 4~6명끼리 팀을 구성해 3일 이내로 탐방하는 식이다. 연수기간은 공무상 출장으로 기록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해 1인당 50만원씩 경비를 지원받는다.

사업비 1억원은 서구청 전체 1300여명 직원 중 6분의 1 수준인 200명까지 연수를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최저 33개 팀에서 최대 50개 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탐방 내용은 마을자치, 골목경제, 복지, 안전, 문화 등 서구청이 추진 중인 5대 구정목표와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연수 목적과 관련된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단체, 기관 등의 방문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관광지 방문 등 외유성 목적의 일정이 포함될 경우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 여러 직급과 직렬을 아울러 팀을 구성할 경우 연수팀 선정 심사에서 가점이 붙는데, '끼리끼리' 모여 외유성 연수를 떠나려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부서에 연수 경험을 분배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서구청은 다음달 초 사업 신청서를 수합한 뒤 사업담당 부서와 국장급 심사위원회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연수 참가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수 이후에는 사업결과서를 통해 연수 내용을 어떻게 연계·반영할 것인지 방안까지 제시해야 하며, 사업결과서가 통과된 뒤에야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상적 목적, 외유성 목적으로 이용되곤 했던 공무원 연수의 관행을 부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도 벤치마킹을 이유로 선진지 탐방 연수를 떠나는 경우는 많이 있었으나, 대개 '고생한 직원 쉬다 오는 일'이란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행을 타파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며 선진지의 사례를 구정에 적용하는 등 연수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자 이번 사업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

사업비가 1억원 수준으로 큰 것도 당초 해외연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연수를 떠나기 어려워진데다 외유성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는 이유로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국내연수 예산으로 전환했다.

서구청 직원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사업 공문을 전 직원에게 전달한 이후 닷새만에 30여명의 직원들이 팀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문의를 해 왔다고 귀띔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혁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연수를 마냥 꺼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진지를 찾아보고 배우며 좋은 사례를 가져와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직원들에게 신선한 배움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서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치동물원 식구 또 늘었다

그랜트얼룩말 2마리, 잇따라 출산…일반 공개

광주 우치동물원이 그랜트 얼룩말 두 마리를 새 식구로 맞았다.

28일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우치동물원에 있는 암컷 '망이'가 지난 5월 '오이'(수컷)를 낳은데 이어, 6월에는 '포스'가 '토리'(암컷)를 낳았다. 〈사진〉

1m 정도 크기로 태어난 새끼 두 마리는 어미들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연이은 겹경사로 우치동물원의 그랜트 얼룩말은 모두 여섯 마리로 늘어났다.

그랜트 얼룩말은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며, 몸길이는 2.2~2.4m 정도다. 새끼들은 태어난 후 1년여간 어미의 젖을 먹으며 자란다.

우치동물원은 자연에서도 보기 힘든 얼룩말 새끼가 어미젖 먹는 장면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랜트 얼룩말들이 살고 있는 '얼룩말사'를 공개하고 있다.

지태경 우치공원동물원 소장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 종들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치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기조변화 타이밍 아쉬워…진로진학 지도 최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빠지는 대신 새롭게 출제될 문항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수능을 140여일 앞두고 정부가 수능기조 변화를 예고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수능 경향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여 수능 변화로 광주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교부금 등 관련 상위법과 배치돼 조례 제정과정에서 교육청과 광주시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며 "재의 요구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법률 검토를 마쳤지만 좀 더 촘촘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활동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해마다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개발비 등으로 90억원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관련,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대안학교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교육청은 '상위법과 위배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 "학생,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수산물에 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 방사능 검사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마을버스 내달 24일부터 멈춘다

버스조합, 적자 보전 요구…각 구청에 6개월 휴차 신청

적자 운영으로 고전하던 광주 마을버스가 다음달 24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라운수', '나라버스', '광남운수', '석봉운수', '광산버스'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광주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7일 각 구청에 휴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다음달 24일부터 6개월 동안 광주시내 12개 노선 85대의 마을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조합은 최근 광주시가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을버스 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휴차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연료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승객 감소 등으로 마을버스 적자 운영이 심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광주시는 광주 마을버스 차량의 적자규모를 조사해 연간 20~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50% 수준인 10~1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마을버스 사장단과 약속했다고 조합은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지원금 항목을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합은 "광주시가 먼저 지원금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등 앞장서야 각 구청도 이에 발맞춰 매칭 지원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광주시 대중교통의 '실핏줄' 마을버스의 보전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 재정이 열악해 예산 항목을 추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어 선뜻 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기 어렵다"며 "추후 지원금 제공 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질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26년만에 새 소방헬기 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8일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에서 다목적 신형 광주 소방헬기(AW139) 취항식을 열었다. 1997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교체된 소방 헬기는 각종 신형 응급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된다. 〈광주시 제공〉